

종이 학습에서 인터넷 학습으로

최 대 환 | (주)한국교육미디어 대표

최근 일고있는 대학 입시 산업계의 지각 변동

'99년에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전국에 80여 만 명, 한 해에 20조 원이 넘는 사교육비를 쓰는 나라-이 중 직접 대입용 사교육비가 대략 10조 원이라고 한다. 나머지 10조 원도 궁극적으로는 좋은 대학 입학을 위한 선지출이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높은 교육열과 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가 작년에 80여 만 가구를 입시 전쟁터로 내몰았으며, GNP 2%에 육박하는 돈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오늘이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계에도 여지없이 거품이 일어, 입시 및 교육 관련 산업이 크게 팽창했다. 내실없는 교재를 출간하는 출판사가 난립하고 아파트 주변 상가엔 보습 학원들이 성황을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쉬워진 수능이나 대학의 자율적이며 다양한 전형 실시 등 대학과 교육계가 손발을 맞추어 입시 환경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조금씩 입시 산업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계의 변화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젊은 교육 기업, (주)한국교육미디어를 통해 우리 입시 교육 산업의 미래를 조망해보자.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원하는 학습지 개발을 위해 출판사 설립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주)한국교육미디어(대표 최대환)는 1994년에 설립한 학습지 전문 출판사이다. 국내 최초로 사회·과학 전문학습지를 창간하여, 3년 만에 학습지 사상 최초로 20만 회원을 돌파하며 지역별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최대환 회장은 (주)한국교육미디어 창립 이전에 십수년 간 여러 출판사의 사업국(판매회사)을 운영했다. 사업국 운영 시절, 최 회장은 21번 이상의 전국 고등학교 순회를 통해 현직 교사들과 학생들의 소비자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 회장이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이 반영된 교재를 만들어 줄 것을 소속 출판사에 지속적으로 제안



하였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였다. 그러면서 직접 좋은 교재를 만들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싹틔웠다고 한다. 이렇게 최 회장의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습지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주)한국교육미디어를 설립하였다.

수능 실시 이후, 학생들의 욕구에 맞는 사회·과학 전문학습지 국내 최초 개발

(주)한국교육미디어 설립 당시, 고등학생 대상의 학습지 출판사들은 대부분 수능시험 전과목을 대비하는 비슷한 체제로 구성된 학습지를 출간하고 있었으며, 경쟁도 치열했다. 그때 최 회장은 많은 학생들이 수능시험 중에서도 과목수가 많은 사회·과학 과목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그래서 전과목을 다루지 않고 사회·과학 과목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습지를 개발하게 되었다.

일단 커다란 뼈대가 세워지자 급속도로 작업이 추진되었다. 먼저 서울대 사대 출신의 순수 서울 과학고 현직 교사들로 출제진을 구성하고, 교재의 내용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다시 검토하는 식으로 최강의 집필진을 구성했다.

또한 수능시험이 통합 교육과 실험 실습의 원리 학습을 중시하는 데 반해 현 교육 실정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던 점을 감안하여 각 과목별로 50개의 CASE(사례)로 엮는 완전 도해식 지상(地上) 공개 특강으로 사회·과학 탐구 15개 전과목을 섭렵하는 식으로 교재를 제작했다. 학습지 최초로 단원 중심의 형식을 파괴하고 각 주제별 학습으로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타 학습지와의 차별화를 선언하였다.

1995년 5월, 6개월여의 산고 끝에 드디어 나온 것이 고등학교 학습지 시장에서 최고의 히트를 친 「사회·과학 탐구 전문학습지 케이스」(이하 「케이스 사탐·과탐」)이

다. 「케이스 사탐·과탐」이 기존 20여 종의 수능 대비 학습지를 제치고 수리탐구Ⅱ 학습지 시장을 석권하며 앞서 갈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교재를 만들자는 신념과 이를 통한 교재의 내실 있는 체제와 내용 덕분이었다. 「케이스 사탐·과탐」은 아직까지도 이 회사의 주력 상품으로, 학생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교재로서 탄탄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케이스 사탐·과탐의 성공을 디딤돌삼아 잇따라 학습지 출시, 학습지 전문 출판 1위로 도약



「케이스 사탐·과탐」의 성공에 이어 고 3을 위한 모의고사 학습지 「노스트라다무스」가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뒤를 이었으며, 수능분석집인 「수능교과서」, 학술전문잡지인 「문학과 교육」을 출간했다. '98년도엔 「종합학습지 케이스」와 수학전문학습지 「징기스칸」을 출시, 명실공히 학습지 전문 출판사로서의 기틀을 다졌다.

특히 「종합학습지 케이스」는 유형별 학습이라는 새로운 학습법 제시를 통해 학생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추천을 받아 출시 이후 3년 동안 놀라운 회수증가를 보였다. 그 결과 '99년에 국민일보 히트상품에 선정되며 학습지 시장에서 1위를 한데 이어 2000년엔 명실공히 확고한 1위를 다졌다(2000년 6월, 한국갤럽 조사 고교 학습지 시장에서 케이스 시장 점유율 30.2%, 2위사는 17.5%).

성공의 비밀은 학생 입장을 적극 반영한 교재 개발 아이디어와 국내 최고 수준의 출제진

(주)한국교육미디어의 학습지가 그토록 빠르게 학생

들의 호응을 받은 것은 앞서도 밝혔듯이 최 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교육 일선에 밀착하여 학생들과 현직 교사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재를 개발한 데 있다. 그는 책을 하나 출간하는 것은 산모가 어린 생명을 잉태하여 출산하는 것과 같은 땀과 희생이 따르며 그에 따르는 생명력 역시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주)한국교육미디어는 학습지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 3개월간 편찬위원의 스테디와 6개월간의 편집 과정을 갖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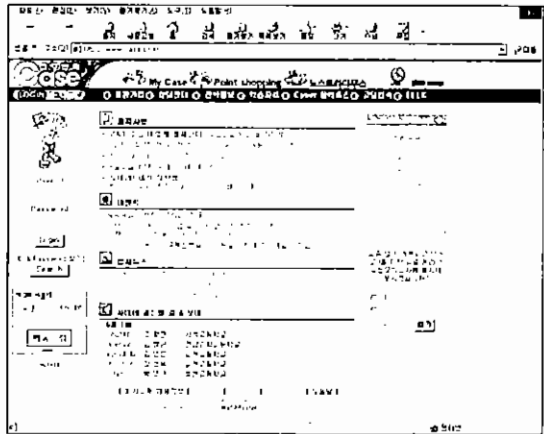
종이 학습에서 인터넷 학습, 상호 맞춤 학습으로 가기 위하여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이 사회를 지배하는 지식 중심의 사회이다. (주)한국교육미디어는 '99년, 새 천년 준비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능률협회가 선정하는 '지식경영대상' 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장기 비전을 '지식 사회를 선도하는 교육전문기업' 에 놓고 현재 전환점에 서있다.

여태까지 종이 학습으로 대변되는 학습지 시장에서 교육 전문 기업으로서의 기틀을 다졌다면 앞으로 교육 기업의 미래는 인터넷 학습, 상호 맞춤 학습 등 더 진보적이며 다양한 학습 형태로 발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시 제도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육 산업의 역할이 단순한 학습 정보 제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입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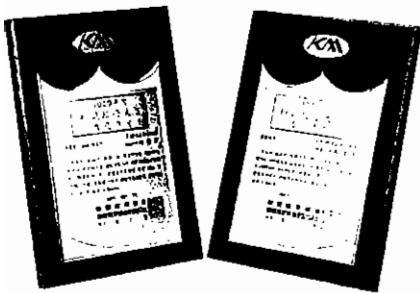
그에 대한 첫 발걸음으로 (주)한국교육미디어



는 고등학생 전문 포털 사이트인 www.case.co.kr을 오픈하여 상담, 입시 정보, 학습 자료 등의 제공을 통해 interactive 교육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가는 전이점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배움닷컴, 웹누리 등 우수 인터넷 관련 업계과의 제휴를 통해 인터넷을 톨로 활용하는 교육 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중에 있으며 인터넷 화상 강의, 1:1 맞춤 학습 강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다양한 후원 사업을 통해 교육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한편 한국교육미디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배분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 후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소년 소녀 가장 및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법무부 산하 지방 교정청 교도소 및 소년원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재소자들에게 무료로 학습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들 중에 대학에 합격했으나 가정 형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나 대학 포기 상태에서 교재 학습 후 획기적인 점수 향상으로 대학에 합격한 학생 등에게 매년 5,0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역시 1년 등록금 전액 수여 학생 및 1학기 등록금 수여 학생을 비롯하여 총 14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



다. 또한 연구 활동 지원 차원에서 '문학과 교육 연구회'를 재정적으로 지원, 계간지인 '문학과 교육'을 발간하고 있다.

교육은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

교육은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따라서 입시를 둘러싼 일련의 개혁과 교육 산업의 방향이 온 국민의 화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미래의 경쟁력 확보를 위

한 교육 개혁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분야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는 성과를 바라볼 수 없으며 장기적인 안목과 내실, 자기 사명감과 철학이 있어야만 살아남는다는 것이 최 회장의 지론이다. 2000년 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지속적인 교육관련 사업 추진과 사업 다각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 교육을 공교육이 모두 끌어안을 수는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과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입시 개혁과 교육 산업이 발을 맞추어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다. **박원**